

품명	부탄		
HS code	2711.13		
관세율(%)	MFN('25)	FTA	RCEP
	1* / 5	0	3 / 6.6
	* 잠정세율		



▶ 해당 품목의 對中 수출은 최근 5년간 등락을 보이다, '25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1.5% 증가하며 단기적 회복세를 보임

한국의 연도별 對中 수출동향(HS code 2711.13)

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20	12,853	-55.2
2021	28,601	122.5
2022	11,370	-60.2
2023	15,234	34.0
2024	12,474	-18.1

2024.9	10,298	-15.5
2025.9	21,784	111.5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통계

- ▶ 부탄은 액화석유가스(LPG)의 주요 성분으로, 공업용, 화학 연료 및 청정 연료 대체제로 활용도가 높음
- ▶ 중국은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에너지 다각화를 추진하며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기반 연료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부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
- ▶ 부탄은 중국의 에너지 다각화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서 핵심 연료 및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향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동 품목을 '25년 3분기 수출 급증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중  
수출동향

(HS 2711.13)

▶ 부탄(HS 2711.13)의 '25년 9월 對중 수출금액은 2,178만 달러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약 111.5%가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임

## 한국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2711.13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3년	2024년	2025년 3분기
1	2711.13-0000	부탄	15,234	12,474	21,784
			2023년 3분기	2024년 3분기	2025년 3분기
			12,184	10,298	21,784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통계

수출금액 및  
FTA 활용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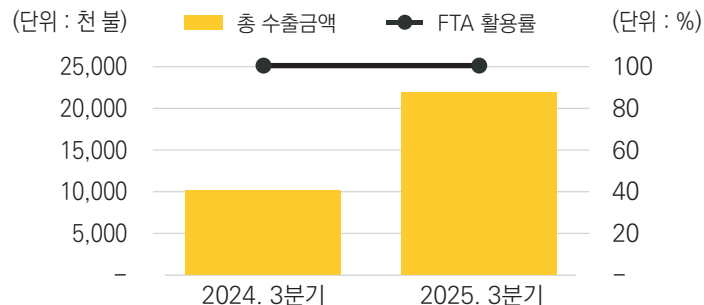
(HS 2711.13)

▶ HS 2711.13(부탄) 對중 FTA 활용률은 '24년 3분기와 '25년 3분기 모두 100.0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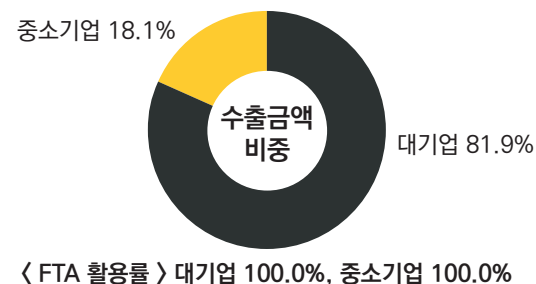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중 FTA와 RCEP 모두 CTH임

▶ '25년 3분기 기준, HS 2711.13호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81.9% 중소기업 18.1%임

## [HS 2711.13 對중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4~2025)]



## [HS 2711.13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5년 3분기)]



중국  
수입 및 관세 현황

▶ '24년 수입 금액 기준 중국의 HS 2711.13의 5대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, 오만, 사우디아라비아, 미국, 카타르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11위를 기록함

중국의 HS 2711.13 주요 5대 수입국 및 한국의 수입금액 비중(2024~2025.09)

(단위 : %)

구분	아랍에미리트 연합	오만	사우디아라비아	미국	카타르	한국	이외 국가
'25.9	35.3	18.3	12.1	7.4	6.7	0.7	19.5
'24	37.2	15.4	15.2	11.2	5.3	0.5	15.2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▶ 주요 수입국 모두 FTA를 체결하지 않아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한-중 FTA와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

국가명	MFN(%)	협정세율		원산지결정기준
		협정	특혜세율(%)	
아랍에미리트	5	미체결	-	-
오만				
사우디아라비아				
미국				
카타르				
한국	5	한국-중국	0	CTH
		RCEP	3~6.6	CTH

자료 : 중국 해관총서 원산지 규정 포털

시사점

- ▶ 부탄은 '26년부터 '33년까지 연평균 4.5%의 성장세가 전망되는(Verified Market Reports, 2025) 산업·소비자 수요 기반 글로벌 에너지 자원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및 화학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됨
- ▶ 한국의 수입금액 비중은 '23년 0.4%, '24년 0.5%, 그리고 '25년 3분기 0.7%로 지속 상승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
- ▶ 특히 한국은 중국과 FTA 및 RCEP 체결을 통해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 혜택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현재와 같이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 특혜 관세를 지속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
- ▶ 다만 중국의 수출입허가제 운영, 국제 원유 가격 변동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수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최신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